

나는 인성 13집에서 인성의 썩썩하고 자랑스러운 딸들에게 격려사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 여러 학생들이 인성이라는 배움의 전당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신체를 단련하며 기독교의 정신을 배우고 보다 깊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종교적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인격의 기초를 다듬질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됨을 솔직히 고백하고 싶다.

아직 만족할 만한 교육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발전의 여지가 많이 드러다 보이지마는, 실질적인 면에서 어느 학교보다 나은 알찬 내용을 갖고 보다 위대한 인성의 꿈을 향하여 정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인성을 지켜주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성의 어린 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는다.

이 사랑의 동산에서 인격을 연마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이제는 설립 초기와는 달리 날로 실력이 향상되어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을 얻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인성의 영광이겠지마는 보통 다른 학교가 지니지 못한 특수한 개성을



창설자 이 기 혁 목사님

자랑스러운 딸들에게

지냈다는 점에서 우리 학교의 자랑을 찾으려 한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학교의 중심이라는 사실이다.

누차 이야기 한 바이저니와, 나는 중학교를 졸업한 20세 전후하여 여학교를 세워보려는 꿈을 가졌었고, 그것이 기필코 오늘에 와서 실현된 것이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여성 교육 사업에 관심을 쏟았고, 이 꿈을 현실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나의 꿈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더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못 다 이룬 꿈도 꼭 성취되리라고 믿고 있다. 비록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 꿈의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군을 통해서라도 이 유업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더불어 인성의 딸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 사업에 뜻을 두게 된 동기는 중국적으로 한국 복음화 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특별히 여성 교육에 착안하게 된 것이다. 한국 복음화의 첩경은 가정 복음화요, 가정 복음화의 중추적 역할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앙적으로 올바른 인격을 연마한 여성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화목한 신앙의 가정을 만들 때 조용히 우리 민족은 복음으로 새로와질 것이다. 이와같은 세포 조직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비근한 예를 역사적인 실증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제정 러시아 국가에 있어서 1860년대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해이다.

러시아 사회의 후진성을 가져다 준 고질적인 농노 제도가 폐지되고 농노 해방을 선포한 해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본래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항구가 많고 기후가 온화한 발칸 반도를 늘 탐내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필연적인 남하정책은 이를 제지하려는 영국과 불란서의 연합 세력과 충돌하여 저 유명한 '크리미아' 전쟁을 발발케 하였던 것이다. 적십자사의 창건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로 널리 알려진 전쟁이다.

크리미아 전쟁에서 참패한 러시아의 사회는 자연적으로 허무주의로 인하여 생기를 잃게 되었고, 젊은 계층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체제와 기존 가치체제를 일체 부정하는 허무론자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하나의 저항의 표시로써 러시아의 젊은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와 반대로 여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큰 목소리로 외치며 예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퇴폐적인 풍조가 그 사회를 휩쓸었기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했던 것이

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타개할 방책으로써 행정부는 여러가지 개혁안을 검토했고, 종당에는 농노해방이라는 역사적 의의 깊은 선언을 했던 것이다. 행정부로 하여금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케 했던 배후의 추진력은 러시아의 지식 계급이었다. 그 당시 지식 계급의 저명한 인사들이 스위스로 많이 건너가 살았다.

이들은 국외에 있으면서도 삶의 목적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주고, 생의 활력을 일깨워 주고, 이상을 심어 주었으며, 근면과 애국정신을 고취시켜 주었던 것이다. 삶의 방향을 잃은 젊은 러시아의 방랑자들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스위스에 경유하게 되었을 때, 애국적인 지식인들의 절규에 직접 접했던 그들은 깊은 감명을 받아 허무주의의 퇴폐적 사고방식을 벗어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농촌운동의 선봉자들이 되었던 것이다. 조국건설이라는 이상에 불탔고 농촌의 흙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농민들과 피땀흘려 일하며 오직 국가 재건에 헌신하였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젊은 사회 계층을 휩쓸던 허무주의는 인민주의로 탈바꿈하였던 것이다.

나는 이 역사적 실증에서 큰 교훈을 얻는다. 교육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이며 인간 개조를 가능하게 하며 인간 정신의 일대 혁명을 일으켜 준다면, 하물며 기독교 교육은 얼마나 더 큰 힘을 포용하고 있겠는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우리 인성의 교육 이념은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심령이 거듭나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딸들로서, 자라서 우리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창조적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건립이념인 것이다.

이 사랑의 동산, 배움의 터전에서 마음껏 뛰노는 인성의 딸들은 세상의 학문도 넓히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체력을 단련하여 건전한 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부조리한 사회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건전한 사회,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는 역군들이 되기를 바란다.

신앙으로서 구김살 없는 인격을 형성하여 사회와 가정으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사업을 성취하는 인성의 딸들이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격려사를 마치려 한다.